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T. 02-3771-0453	F. 02-6234-5284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담당부서장: 유지미 팀장	담당자: 한중훈 과장 e-mail: haans@fki.or.kr

문 서 번 호 전경련국제협력팀2016-0279 발 송 일 자 2016-06-13
수 신 회원사대표
참 조 비서실, 국제담당부서장

제 목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지난 1978년부터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와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 한-노르웨이 양국 기업계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이에, 글로벌 조선·해양강국인 노르웨이와 해양 분야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6년 6월 28일(火) 10:00 ~ 14:00
- 장 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회의) 에메랄드룸(오찬)
- 참가자 : 한국, 노르웨이 양국 기업인 약 50명 (* 임·부서장급 참석 요망)
- 프로그램 : <첨부1> 참조
- 참가신청 : 6/22(水)까지 <첨부2> 신청서 이메일 회신
- 문의 및 회신 : 국제협력팀 한중훈 과장(T. 02-3771-0453, haans@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첨부1>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개최[案]

- 일 시 : 2016년 6월 28일(火) 10:00 ~ 14:00
- 장 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회의) 에메랄드룸(오찬)
- 주 최 : 전경련,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 주 제 : 블루성장, 해양에서의 한-노르웨이 협력 기회
- 참석자 : 약 50명
 - 한국측 : 박대영 위원장, 정부 고위인사, 노르웨이 진출 기업인 등 20여명
 - 노르웨이측 : 레미 에릭슨 위원장, 정부 고위인사, 기업인 등 20여명
- 프로그램(案)

10:00-10:30 인사말씀

- 박대영 한국측 위원장 (삼성중공업 대표)
- 레미 에릭슨 노르웨이측 위원장 (DNV·GL 대표)
- 한국정부 고위 인사
- 안 올레 그레브스타 주한노르웨이대사

10:30-12:00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 해양산업의 디지털화 - 기회의 海洋
- 에너지의 미래상 구축
- 부유식(浮游式) 재기화(再氣化) 터미널 - 新시장 접근법
- Arctic 선박건조 및 해양구조물 개발을 위한 R&D 과제
-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경험 공유
- 新재생에너지 협력

12:20-12:30 댁음말씀 (양국 위원장)

12:30-14:00 오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 노르웨이측 참가자 명단(案)

2016. 6. 13(月) 현재

	Name	Organization & Position
1	Ms. Tove Skogen (TB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 Secretary (Vice Minister)
2	H.E. Jan Ole Grevstad	Embassy of Norway to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3	Mr. Remi Eriksen	DNV GL Group (노르웨이선급) President & CEO
4	Mr. Henning Kristoffersen	DNV GL Group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Director Asia
5	Mr. Tommy Bjornsen	DNV GL Group Regional Manager Korea and Japan
6	Mr. Geir Håøy	KONGSBERG (선박 기자재 전문기업) President & CEO
7	Mr. Even Aas	KONGSBERG Executive Vice President Public Affairs
8	Mr. Kjetel Rokseth Digre	Statoil (노르웨이석유공사) Senior Vice President
9	Mr. Terje Iversen	Statoil Vice President, Engineering & Procurement
10	Mr. Vegar Hellekleiv	Höegh LNG (LNG 운송회사) Chief Technical Officer
11	Ms. Valborg Lundegaard	Aker Solutions (석유공급사) Executive Vice President
12	Mr. Stefan Johansson	Aker Solutions Project Director, Johan Sverdrup phase 1 EPma
13	Mr. Jon Dugstad (TBC)	INTPOW (신재생에너지유관기관) Director
14	Mr. Roy A. Dyrseth	MHWirth (해양시추설비사) Chief Commercial Officer (COO)
15	Mr. Steve Y.H. Hyun	MHWirth Strategic Account Director
16	Mr. Svein Oppegaard	NHO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 Executive Director
17	Mr. Tore Myhre	NHO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18	Mr. Torkel Thorsen	NHO Asst.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노르웨이측 주요 참가기업 개요

① DNV GL

- 1864년에 설립된 선박 및 해양선급협회 (본사: 오슬로, 노르웨이)
- 총 17,000명의 직원 근무 (2013년)
- 2012년말 노르웨이 선급(DNV)이 독일선급(GL)을 합병하며 DNV GL 탄생
-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및 해양선급협회, 오일 및 가스산업 관련 선두적인 기술 자문기업
- 선급분야 세계 1위, 종합인증분야 세계 3위 기록 (2013년)
 - 총 등록톤수 : 3억 5,400만DWT, 등록척수 : 12,000척

② Kongsberg Maritime

- 1814년 설립된 선박 기자재 제작 전문기업 (본사: 콩스버그, 노르웨이)
- 총 4,727명의 직원 근무 (2015년)
- 선박, 자동차 등 기자재 공급기업인 Kongsberg 그룹의 자회사
- 총 20개국 내 선박자동화, 화물제어, 항해시스템 및 자동위치제어 시스템 등 공급사업 수행

< Kongsberg Maritime 실적추이 (억불) >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8.9	9.8	11.5
EBITDA	1.2	1.4	1.7

③ Statoil

- 1972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영 종합 석유기업 (본사: 스타방가, 노르웨이)
 - * 노르웨이정부에서 67% 지분 소유
- 총 22,516명의 직원 근무 (2014년)
- 2007년 스타토일社와 노르스크 휘드로社 석유부문이 합병하여 현재의 스타토일社 탄생
- 현재 노르웨이 원유 생산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세계 37개국 내 오일 및 가스 사업 수행
- 순이익 기준 전세계 원유업계 11위 기록 (2013年 Forbes)

〈 Statoil 실적추이 (억불) 〉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734	722	554
영업이익	185	130	18
순이익	47	26	△44

④ Höegh LNG

- 1927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Hoegh社의 자회사 (본사: 오슬로, 노르웨이)
- 총 600여명의 직원 근무 (사무직 100여명, 선원 500여명)
- LNG 운반선 및 FSRU 운영 사업 영위
 - *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 Höegh LNG 선대 현황 〉

선박종류	선형	척수
LNG 운반선	126K	1
	147K	2
FSRU	170K	5 (3척 건조中)

<첨부2>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참가신청서

회 사 명	(국문)	
	(영문)	
참가자명	(국문)	
	(영문)	
직 위	(국문)	
	(영문)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이메일)	

	회의 (10:00-12:30)	오찬 (12:30-14:00)
참석여부		

※ 신청서 작성 후 6월 22일(水)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haans@fki.or.kr 송부 후 확인전화(02-3771-0453) 부탁드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귀중